

열림과 채움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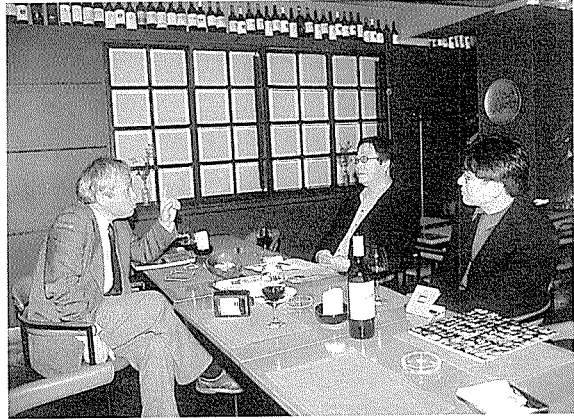
Spaces Open and Filled

건축사 / 이상연(가람이상연 건축사사무소)

대담자 / 이상해(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일시 / 2000년 3월 30일 18시

장소 / 와인스킨(신사동 소재)



대담광경 (왼쪽:이상해, 가운데:이상연, 오른쪽:이공희)

이상해__주택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작품활동을 하시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이상연__우리의 문화가, 건축문화도 마찬가지로 경제발전 때문에 조적이 큰 것, 규모가 큰 것, 부유한 것 등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꾸로 작은 단위의 것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주택이지만 제일 대표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해__사실 역량있는 건축가들이라면 자기 건축에 대한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주택인데,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경향으로 봐서 역량있는 건축가들이 주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결국은 큰 프로젝트나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았죠. 그리고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측면에서 본다면, 주택설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건축가들에게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즉, 건축가들이 건축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주택이고, 주택이야말로 그 건축물에서 직접 생활하는 사람이 건축주라는 점입니다. 다른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주와 실제 사용자가 분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건축가들이 사용자에게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건축주와 대화연결이 원활치 못한데 비해, 주택은 건축주와 사용자가 같기 때문에 생활자체를 이해 하고,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가의 건축적인 생각을 설계도면으로 나타내니까 주택을 통해서 실제로 건축가의 역량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반 사회에서 주거문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가 중요하고, 거기에 건축가의 역할이 있는데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그 역할을 수행할 기회가 사회적으로 적었고, 또한 그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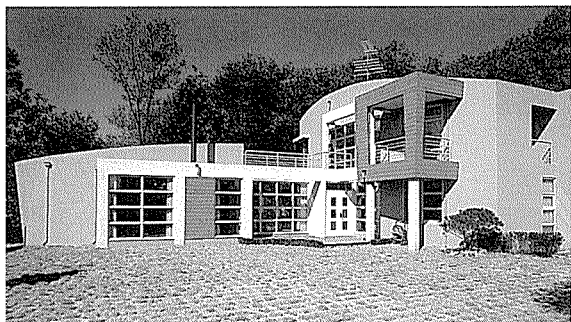
수행을 못한 것이 현재 우리 건축계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파주 화계당 주택을 보면, 뒷동산이 있고, 앞마당이 있으면서 집이 묘하게 자연과 어우러져 결국 주변이 집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과 과천 뒷골 감나무집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연__파주 화계당을 설계할 때 공사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들어설 대지에 가보니까 170여평 정도됐고, 파주가 낮은 구릉지로 이어진 산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묘한 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낮은 구릉지가 보이고, 뒤에는 높지않은 숲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 대한 해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5년전에 소쇄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개울과 담과 대청마루가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좋은 실례를 보았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자연우위의 건축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자연의 품안으로 들어가는 등 자연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은 자연하고 호흡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때 화계당을 할 때는 뒤에 숲을 보고 앉아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숲은 옛날 중상층에 나오는 화계화단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해서 화계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벤치에 앉아서 숲을 보고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주변경관과 자연이 어떤 교우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이상해__자연이라는 생각이 집 자체를 땅에 앉힐 때도 물론 자연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사는 사람의 처지에서 집안에서 봤을 때도 자연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건축가들은 여러 가지 방식들을 나름대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보면, 화계당도 그렇고 과천뒷골감나무집도 내부에서 보면 주변 자연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형식이 중요하고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천뒷골감나무집의 부분 부분과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주변상황이 설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상연__건축주를 만나고 대지에 갔을 때는 지금 지어진 집 터에 옛날에 지은 국민주택규모 단층 가옥이 있었어요. 그 땅은 2.4미터가 높았고, 지형은 그대로인데, 입구가 사실 웅졸했습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 사이트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느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 주변의 환경이 집이 자리매김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주택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형을 극복하는 문제하고, 거실의 향, 집의 향, 우면산자락이 참 아름다운 곳인데 그것을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공간 등을 고민했습니다. 건축주는 앞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우물은 없애자는 얘기도 했는데, 제가 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물이 2.5미터 상단에 있는데 입구쪽으로 썰어서 낮게해서 두레박우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원래 우물레벨로 낮춘것입니다. 그것을 정원의 한 요소로 사용했습니다. 건축주는 앞에 대지가 있어서 앞으로 건물이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거실의 향을 서남쪽의 숲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옥의 마당역할을 부여해서 대문에서 진입하는 정원, 또 올라가서 거실하고 생활하는 마당,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2층에서는 누각같은 옥외공간으로 구분했습니다. 또 진행하면서 뒷마당의 공간을 부엌에 딸린 서비스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앞마당의 공간과는 성격이 달라야 되고, 다른 공간하고는 달라서 장독이 놓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열면 커다란



피주 화계당

창을 통해 뒷마당의 장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해__대부분의 경우에 건축가들이 어느 터에 집을 앉히게 되면 땅이 건물과 만나게 되는데, 결국 어느 한층에서만 집에 들어가는 방식이라는 묘한 고정관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중요한 것은 매층마다 마당을 가지고 있고,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층마다 자연과 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들어가면서도 지하층인데 지하층이 아닌 것 같은 오히려 밖에 있고, 1층은 나름대로 자연과 만나는 원지방으로써의 만남이 있고, 2층은 하늘에 떠있는 공중에 만든 인공적인 하나의 지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자연과 만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상연__제가 과천뒷골감나무집을 설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자연관이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건물이 자리매김하는 것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의 기능, 식당의 기능, 현관의 기능, 방의 기능, 옥외공간의 기능 등 이런 공간들이 모두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체가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 개체들이 어떤 하나의 단일생각으로 하모니나 통일성을 위해서 응집되는 것보다는 개체가 살아나는 집, 각각의 단위 개체가 제 나름대로 순수한(pure) 형태나 용도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을 하고있는 것이 우리의 자연관하고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해__특히 1층부분에서 외부지면과의 만나는 부분에 건물이 있어서 사방팔방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나가면서 옛날의 툇마루같은 테라스가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대문을 통해 들어오면 계단을 따라 한 개 층을 올라가서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의도적이지 아닌 공간의 흐름을 타고 대문에서 현관까지 자연과 접하면서 진입할 수 있는 것 또한 좋은 것 같습니다. 재료자체도 노출콘크리트로 어떻게 보면 집 자체는 기하학적인 형태인데, 대문에서 현관까지의 진입 부분만큼은 화장실부분에서 둥그렇게 재료를 끝을 내버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문에서부터 올라올 때 사실은 2층 테라스부분의 프레임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건물자체는 전체높이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프레임부분은 조금 더 낮았더라면 그것은 사실 외부공간에서 상관이 없거든요. 낮으면 훨씬 더 사람입장에서 보면 스케일이 다운되니까 좀 더 친근감이 있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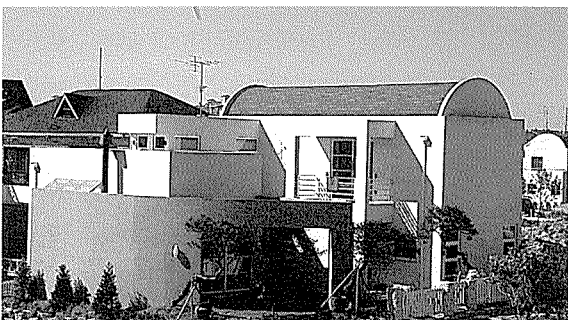
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연___ 지하실이 스퀘어(square)로 되어 있어요. 지하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레벨이 왜 올라갔느냐 하면 2층의 데크 레벨을 살릴려고 그랬습니다. 누각 같은 데크에서 외부를 보면 너무 오픈되어 있으면 그 맛이 덜할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느끼는 광경이 가벽으로 인해서 훨씬 더 공간감이 살아났어요. 그것은 스케일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앉아서 휴식하는 사람입장에서 가벽을 설정했습니다.

이상해___ 사실 과천 뒷골감나무집에서 가장 자연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 공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밖을 볼 때 자연의 중심에 앉아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방을 내다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상연___ 건축주가 그 공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안방에서 나와서 옥외테라스가 방만한 게 있는데, 그 공간이 오픈이 안되어 있고, 가벽이 있으니 휴식하기에도 너무 편안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면산 산자락이 다 보입니다. 우리나라 고건축에서 제일 경치좋은 곳에 누각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넉넉한 그런 공간이 저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안방에서 옥외테라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령 서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공간 개념이 나오기가 힘들죠. 나름대로 건축물을 답사하고, 무언가를 느끼고, 또 자연에 대해 어떠한 해석이 중요한가를 깨달았을 때 그런 공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해___ 건축주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2층공간을 공유하게 되어있어요. 혹시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나 설계하시면서 생각은 없었습니까?



일산주택

이상연___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부만을 위한 공간이 오히려 더 필요하는 것을 기존 건물에서 느꼈습니다. 기존건물은 단층주택인데 다락방을 만들어서 부부방이 있었어요. 그 다락방의 조그만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애뜻한 중년 부부애를 느꼈고, 그래서 오히려 부부공간을 더 많이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해___ 1층 거실에서 보면, 애들 방은 지하실로 내려가고 부부방은 윗층으로 올라가는, 벽을 끼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건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현관에서 보면, 앞이 띄어서 뒷마당의 장독대가 보입니다. 그것이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묘하게 엉켜있거든요.

이상연___ 개인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밖을 내다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계단이라는 것이 아파트의 계단이나, 근린생활시설에서의 답답한 계단이 아니라 제 주택을 보면 모두 밖을 보면서 또는 오픈공간을 끼고 계단을 오르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생활의 흐름이기 때문에 즐거워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계단은 유일하게 움직이면서 느끼는 곳인데, 움직일 때는 뒤의 정원을 보고 오르내릴 수도 있고, 2층의 부부공간과 아래층의 애들공간이 교차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러면서 거실존에서 같이 화합하고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공희___ 제가 이 집에서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은 자연에 대해 건축가가 대처한 두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주위의 방만한 자연을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평면적으로는 뒷마루와 테라스라는 전이공간을 두어 주변환경과의 접촉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주변자연을 각각의 스크린을 통해 체득되도록 한점입니다. 이 스크린을 헛벽(Picture Frame)을 건축적 수단을 이용하여 건축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헛벽은 이 주택이 자연속의 집이 기하학적인 형상이면 곤란하다는 상식(?)을 역설적으로 접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헛벽을 통해서 주변 자연을 장면, 장면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 속도까지도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헛벽이외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문에서 현관까지 긴 경로의 해결 방법입니다. 곧은 접근이 재미없을 수도 있었지만, 의도된 단풍나무 한그루와 기존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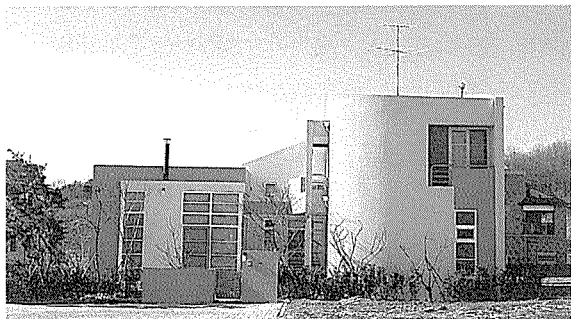
물의 보존이라는 장치를 통해 재미를 살려내어 길어질 수도 있는 접근의 시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상연___주차공간이 현관에 있다는 것이 딱딱해요. 아무 의미없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러던 중에 단풍나무와 우물이 어울리는 것을 알고 제안을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단풍나무 가지가 스치는 기분하고, 가지만 있어도 좋은 게 또 단풍나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주차공간을 정원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공희___이 집에서는 장면, 장면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면을 설정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번째 장면을 대문 2.4미터의 높이를 해결하는 담장의 프레임으로 보았고, 들어가면서 현관위에 있는 것이 두번째 프레임이고, 또 현관에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주택으로 있는 프레임이 2개 있는데, 하나는 한층이고 또 하나는 두 개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뒷마루쪽에서 보는 것, 마루에서 보는 것 등 6개의 픽처 프레임으로 이 작품을 보았습니다.

이상해___대부분 1층을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설계할 때 도로면이 집 앉히는 자리보다 낮을 경우에 억지로 사람을 1층으로 끌어올려서 올라갈 때 즐거운 마음이 없어지는데, 여기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지루하지 않게 드라이(Dry)하게 처리된 부분은 이 집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봅니다.

이상연___짧지만 집속에 길이 하나 있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에 길이 있음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또 다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드나들 때 거실까지 가는 길이라는 연출에 있어서 대지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고



일산주택

블고불한 것보다는 직선을 선택했고, 어떤 프레임 틀안으로 들어가는 직선공간에 나무도 심고, 우물도 만들어서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건축주도 현관에 나와서 대문까지 가는 공간이 좋다고 합니다.

이공희___선근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길게 느껴질 수 있었던 공간을 시각적으로 짧다고 의식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상해___이 집을 주변측면에서 볼 때 물론 대지가 도로에서 2.4미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로측에서는 한쪽면이 웅벽이 생깁니다. 웅벽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계가 되지만, 뒤쪽을 보면 산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집은 담장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봐도 담장이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상연___그 문제는 전적으로 제가 건축주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지형이 2.4미터로 높기 때문에 담장을 안세워도 프라이버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사는 사람이 밖을 내다보는 개방감이 있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은 높이치고 했는데 그것도 낮추자고 했어요. 콘크리트 레벨에 나무로 된 대문을 맞추어서 오픈성이 있어야 이 집이 즐거울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어요. 실제로 지어놓고 보니까 잘했구나 그래요. 현관을 들어설 때 그렇게 정답다고...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문화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고건축에는 담문화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열린공간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담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1.5미터 이하의 나무를 심는 것은 괜찮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정원역할과 길 개념, 들어서서 뒷마당을 보는 느낌, 그리고 거실에서 숲을 보는 느낌, 식당에서 마을 어귀의 길을 보는 것, 그리고 뒷마루에 나와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 또 뒤에 보면 데크가 있는데, 이곳은 독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층에 올라가면 이 집에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안방과 함께 있는 뒷마루 공간 등을 설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주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2층의 뒷마루 공간과 1층 마당앞에 있는 데크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집에서 내가 산다면 무엇을 느낄 것인가, 또는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입니다.

이상해 ___ 2층에서 보면 거실상부와 연결되어 틱어져 있는 벽을 통해 밖의 광경이 건물안으로 들어오는데, 혹 들어오는 장면이 낮과 밤이나 계절마다 벽에 부딪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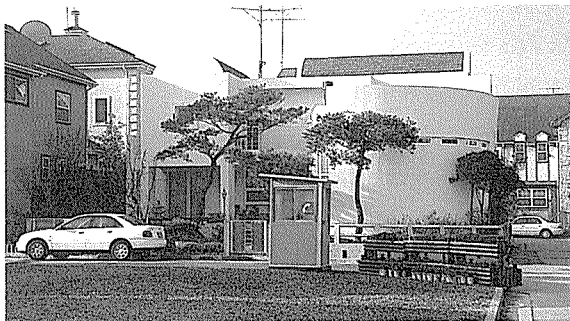
이상연 ___ 초승달이 떴을 때 초승달 불빛이 2층의 조그마한 창으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더라는 말을 건축주가 합니다.

이공희 ___ 의외로 밑에만 틱여 있고 위에는 조그마한 창들이 있어 왜 그랬을까 궁금했습니다.

이상연 ___ 원래는 천창을 할려고 했습니다. 앞에 펼쳐진 자연이 너무 좋아서 2층에서의 느낌이 연속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창을 내서 밖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자는 것이었는데, 초승달 불빛이 들어와서 참 좋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공희 ___ 2층에서 2가지 의외성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자연과 호흡하면 자연이 인입되고 상호관입되도록 해주는 것이 상식인데 그것을 막았더라구요. 연속극보다 장면이 바뀌는 것같은 의외를 느꼈고, 그다음에 보통 안방에서 쓰는 화장실은 안방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도의 집을 보면 비맞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의외라고 느꼈습니다. 브릿지를 통해서 화장실을 가야되니까... 부부침실의 화장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프라이빗(Private)한데 공연부위를 가는 것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연 ___ 2층공간은 부부전용공간이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공간공간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바로 옷을 갈아 입을 수 있고, 화장실, 부부공간, 옷장을 하나의 단일공간 즉 한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실상부와 틱어져 있지만 완전히 독



임산주택

립된 하나의 공간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이 건축주가 받아들이가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건축가를 굉장히 신뢰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부부만이 존재하는 공간을 1개층 전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편안한 것입니다.

이공희 ___ 많이 걷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걸으며서 복도 끝에 난 창문, 그 프레임을 통해 또 자연을 볼 수 있어서 프레임들을 상당히 많이 고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도시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속에 있어서 많이 걷게 해주고 걷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비주얼 타겟을 만들어주거나 옥외에 있으면 스크린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한정한다고 봅니다.

이상해 ___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한 경우에 많은 건축가들이 기하학적인 형태라고 할까, 도상적인 형식으로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연과 대치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인 형상을 가지면서도 상당부분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형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실제로 주거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이 집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공희 ___ 보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이 집이 비록 작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2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연 ___ 처음에 대지에 갔을 때 건물을 어떻게 앉혀야 될까, 가령 건물의 파사드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루어져야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건축주는 거실을 남서향으로 앉히기를 원하는데, 남서향으로 하면 옆으로 돌아서는 건물이 됩니다. 이 집이 과연 옆으로 돌아서도 될 집인가, 자연과 건축을 생각해 보면 파사드는 남향으로 비슷하게 앉는 것이 좋겠다, 건물의 자리매김이 참 좋은 것 같다고 이상해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파사드의 느낌을 남향으로 설정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남서향으로 서 있지 않다는 느낌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도 큐빅의 프레임을 넣었어요. 그 큐빅의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남향의 파사드를 갖게하는 요소가 됐어요. 그리고 남서향을 갖는 거실하고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는 리텅굴러(rectangular)로 해서 남서향을 보고, 또 하나는 스퀘어로

해서 남향을 볼 수 있는 2가지 요소가 엮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하고 현관은 남쪽을 보게된 것입니다. 그 축과 남서향 축을 기하학적이면서 융합시키는 원리가 슈프리마티즘(suprematism)에서 정의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실은 실사용공간이고, 스퀘어는 사실 프레임에 의한 빈공간이에요. 스퀘어와 리텅굴러가 @매어져 있는 것은 성격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형태도 다릅니다. 그것이 독자적으로 있으면서 조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디자인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해 ___ 길이 남동북서축 길과 그 길과 수직으로 접해있는 막다른 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물자체를 설정하는 것을 보면 남동북서축 방향으로 돼야 될 것 같고, 본래 대지의 길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45도축으로 만들어 주므로써 자연스럽게 뒷마당이 생기는 그런 2개의 축이 집의 입방체와 연관돼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연 ___ 자연스럽게 뒷마당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통은 남북방향으로 건물을 똑바로 놓는데, 이 집의 경우는 거실앞에 다른 집이 있고, 또 수려한 산세의 자연스런 유입을 꺾이기 위한 의도가 또한 축을 설정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이공희 ___ 한강변의 워커히호텔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강과 평행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스듬하게 배치하므로써 오히려 한강이 길게 보이는 이치와 같은 경우이군요.

이상해 ___ 그렇게 하므로써 훨씬 더 띄어진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측면에서 재료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연 ___ 여태까지 주택에서 콘크리트를



일산주택

쓰는 것이 모험적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비트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건축주께서 노출콘크리트건물이 어떠냐고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건물의 느낌과 재료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또 싫증나지 않는 특징 등으로 좋아한다고 하니 건축주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죠. 그동안 노출콘크리트를 주택에 사용해 보는 것, 또 사용의 성공여부에 있어서 확신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호응해주는 예는 없었어요. 내외부에 노출콘크리트는 우리나라 기후환경에서는 힘들다고 보고, 외부에서는 노출되고 내부에서는 단열재와 집선보드를 사용하고, 색깔은 콘크리트와 이질적이지 않게 하는 방법 등으로 결코나 난방에 전혀 문제없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상해 ___ 이 집에서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이 처음이었나요?

이상연 ___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집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노출콘크리트도 우리나라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묘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상해 ___ 앞으로 이런 주택을 설계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상연 ___ 이런 환경이 주어진 주택은 참 힘듭니다.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내 군사보호구역이고 자연과 접해 있는 대지에서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이 집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정서에 맞고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작품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건축가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에 있을 당시 김수근선생도 가장 애착을 갖고 현장에 직접 다닌 것이 주택이었습니다. 작가는 자기가 직접 핸드링한 것이 평가되고, 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현재 건축계의 가치관부재가 아쉽습니다. 말하자면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사실 소외되어 있는 현상, 그리고 집단이나 규모에 가치를 두고 문화의 본질적인 가치는 등한시 하는 것이 과연 건축가의 자세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